

청소년의 정신건강특성이 만취경험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자료 이용

임재란¹, 이주영^{2*}

¹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on Heavy drinking Experience: A Study Based on the 18th Annual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of 2022

Jae-Ran Lim¹, Joo-Young Lee^{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만취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2년)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30일 동안 만취한 경험이 있는 53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취경험은 성별, 학업 성적, 경제 상태, 성관계 경험, 흡연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 특성 중 스트레스 인지,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만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할 때 음주 습관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신건강과 음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키워드 : 건강행태, 만취, 음주, 정신건강,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their mental health in relation to experiences of heavy drinking. The research utilized raw data from the 18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22), focusing on 530 participants who reported experiencing heavy drinking in the past 30 days. The study applied weighted composite sample analysis, incorporating frequency,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o examine the data.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experiences of heavy drink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variables such as gender,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sexual experience, and smoking. Additionally, among the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stress perception, depression, loneliness, suicidal thoughts, suicide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on heavy drinking experience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prevention programs addressing alcohol consumption habits, considering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adolescents. Developing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drinking habits can contribute to forming healthy lifestyle habits during adolescence.

Key Words : Health behavior, Heavy drinking, Drinking, Mental health, Adolescent

*Corresponding Author : Joo-Young Lee(jylee7645@jwu.ac.kr)

Received November 7,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Revised November 17, 2023

Published Novem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청소년기는 입시 위주의 정책에 의해 어려서부터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에 의해 대다수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의 과정 중 학령기에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시기로 자아인식 발달과 변화하는 현실상황에 적응하는데서 오는 혼돈으로 긴장감과 소외감의 감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1].

그러나 청소년들은 정신적, 신체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중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자신의 통제능력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 시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의사결정 능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유혹에도 쉽게 일탈적 행동이 나타나 청소년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2].

이 시기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쉽게 음주 행위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다[3]. 이러한 음주는 성인에 비해 신체의 세포 및 조직의 발달을 저해하고 일상생활의 일탈을 초래하여 청소년에게 심각한 문제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8].

2022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음주율은 남학생, 여학생 각각 15.0%, 10.9%이며, 위험 음주율에 해당하는 (음주 1회 평균량이 중등도: 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음주율도 남학생, 여학생 각각 6.1%, 5.1%이고, 만취경험도 남학생 12.0%, 여학생 12.1%로 나타나 음주관련 모든 항목에서 2021년보다 증가하였다[4]. 이러한 만취경험에 대한 의미는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날'을 뜻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 결과에서 음주행위가 스트레스, 주관적수면 후 피로회복, 우울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4, 18].

청소년기는 이차성징이 진행되는 시기로 이때의 음주로 인해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행위에도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음주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양한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 음주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자살 생각 등은 음주를 하지 않은 군보다 음주를 한 군에서 높게 나타나 음주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5, 6]. 그리고 음주로 인한 자살시도나 생각에 대한 위험은 음주를 처음 접한 나이가 13세 이하로 낮을수록, 문제 음주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7],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생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8].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우울은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3, 9], 건강행위와 관련해서는 음주, 흡연, 폭력, 성행동도 자살과 관련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4, 5, 10, 11].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의 술집가게 수, 실업률, 범죄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음주를 하거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12]. 특히 개인의 음주관련 문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였고[13], 음주행위와 건강위험 행위는 불안정한 사회환경(실업률, 범죄율, 이혼율 등)에서 증가하였다[14].

청소년들은 가정의 상황변화로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환경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 역할이 감소하여 가족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낮아진 영향으로 청소년 자신의 내·외적 통제능력이 약화된다고 한다[15, 16]. 청소년들은 가정의 결핍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체계 밖에서 음주, 흡연, 약물 사용 등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일탈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17].

한편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개인을 둘러싼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문제와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도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교성적, 가정환경, 신체활동 등으로 나타났다[3, 18].

청소년의 만취경험은 자살생각이나 약물사용 등과 같은 일탈행위나 비행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8]. 그러나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만취경험을 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만취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음주하는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취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취경험을 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만취경험과 정신건강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2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요 건강행태를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등 16개 영역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알아보고자 시행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수집은 총 800개교 57,965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11,758호)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0일간 만취경험에 '예'로 응답한 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변수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2년)에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등 16개 영역의 114개 문항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으로 분류된 평상시 인지하는 스트레스, 주관적 수면 후 피로 회복,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외로움과 평생 음주와 만취경험 등의 조사내용을 사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남, 여),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근 12개월 동안의 학업성적(상, 중, 하), 가정의 경제수준(상, 중, 하), 성관계 경험여부(유, 무), 최근 30일 동안의 흡연여부(유, 무)를 조사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조사되었다.

2.3.2 만취경험

음주 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에 '있다', '없다'의 2개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여부에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로 2개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2.3.3 정신건강 특성

정신건강 특성으로는 평상시 인지하는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주관적 수면 만족도, 자살 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외로움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부터 '전혀 느끼지 않는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자료를 '스트레스를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로 재분류했다. 수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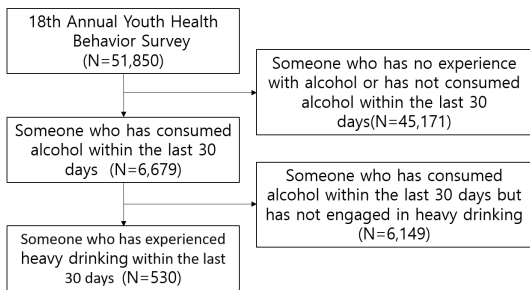


Fig. 1. Subject selection process

만족도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충분하다’부터 ‘매우 충분하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자료를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로 재분류했다. 우울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로 구분되어 있다.

외로움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부터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로 재분류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로, 자살 계획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로, 자살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로 조사되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본설계로 구성된 자료이므로 SPSS Statistics ver. 25.0를 이용하여 복합표본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8차(202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라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변

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 (Table 1)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인 전체 청소년 51,850명의 12.9%(6,679명)가 30일 이내에 음주경험이 있고, 음주하는 학생의 7.94%(530명)가 30일 이내에 만취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만취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7.9%(296명), 여학생이 42.1%(234명)이며, 학교급은 중학생이 26.3%이고 고등학생이 73.7%로 나타났다. 처음 술을 먹어본 시기는 중학교가 56.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가 28.0%, 고등학교가 16.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학업 성적은 중간이 65.7%, 낮음이 23.0%, 높음이 11.5% 순이며, 가정의 경제 상태는 상이 43.2%, 중이 39.2%, 하가 17.6% 순으로 나타났다. 만취경험이 있는 학생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40%, 현재(30일 이내) 흡연을 하는 학생은 65.6%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cial demographic factors

(n=51,850)

Variables	Categories	Non-Drinking (n=45,171)	Drinking experience		p-value*
			Non-binge drinking (n=6,149)	binge drinking (n=530)	
Gender	male	22,495(50.4%)	3,606(59.6%)	296(57.9%)	0.023
	female	22,676(49.6%)	2,543(40.4%)	234(42.1%)	
School year	Middle school	26,004(55.4%)	1,864(27.8%)	147(26.3%)	<0.001
	High school	19,167(44.8%)	4,285(72.2%)	383(73.7%)	
First Drinking	Non	34,269(75.8%)	-	-	<0.001
	Elementary school	3,390(7.2%)	1,559(24.7%)	147(28.0%)	
	Middle school	5,079(11.3%)	3,088(49.7%)	301(56.0%)	
	High school	2,433(5.7%)	1,502(25.6%)	82(16.0%)	
Academic Achievement (last a year)	High	6,239(13.9%)	638(10.3%)	58(11.5%)	<0.001
	Middle	35,043(77.6%)	4,592(74.6%)	345(65.7%)	
	low	3,887(8.5%)	919(15.1%)	127(23.0%)	
Economic Status	High	19,191(43.6%)	2,476(40.8%)	221(43.2%)	<0.001
	Middle	21,191(46.3%)	2,743(44.5%)	209(39.2%)	
	low	4,786(10.1%)	930(14.7%)	100(17.6%)	
Sexual experience	No	43,476(96.1%)	4,962(80.0%)	324(60.0%)	<0.001
	Yes	1,695(3.9%)	1,187(20.0%)	206(40.0%)	
Smoking Behavior (last 30 days)	No	44,479(98.4%)	4,885(79.1%)	242(43.4%)	<0.001
	Yes	692(1.6%)	1,264(20.9%)	288(56.6%)	

* p-value from chi-square test

3.2 만취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정신건강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30일 이내 만취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of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n binge drinking behavior (n=530)

Variables	B	OR (95%CI)	p
stress perception	No	1	<0.001
	Yes	0.582 1.718 (1.293-2.282)	
depression	No	1	<0.001
	Yes	-0.404 1.876 (1.560-2.255)	
loneliness	No	1	<0.001
	Yes	.437 1.548 (1.243-1.928)	
Fatigue recovery after sleep	No	1	0.029
	Yes	0.208 1.231 (1.021-1.485)	
suicide thought	No	1	<0.001
	Yes	.550 1.734 (1.402-2.144)	
suicide planned	No	1	<0.001
	Yes	.780 2.181 (1.640-2.901)	
suicide attempt	No	1	<0.001
	Yes	1.093 2.983 (2.213-4.021)	

현재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않는 학생보다 1.72배(95% CI: 1.293-2.282, p<0.001) 만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이 1.88배(95% CI: 1.560-2.255, p<0.001) 만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1.55배(95% CI: 1.243-1.928, p<0.001)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수면 후 회복 정도에 따라 1.23배(95% CI: 1.021-1.485, p=0.029)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73배(95% CI: 1.402-2.144, p<0.001),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18배(95% CI: 1.640-2.901, p<0.001),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98배(95% CI: 2.213-4.021, p<0.001)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만취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음주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청소년 51,850명의 12.9%(6,679명)가 음주를 하며, 음주하는 학생의 7.94%(530명)가 최근 30일 이내에 만취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만취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26.3%가 중학생이고, 첫 음주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인 학생이 84%가 해당되어 매우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나이에 음주가 시작되면 성인기에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소년기의 음주 관련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은 알코올 탈수소효소가 적어 알코올 분해에 어려움이 있고, 남성에 비해 음주 시작으로부터 중독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다[19]. 여학생의 음주는 수업 결석, 학업능력 저하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비음주자에 비해 성적 접촉과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20]. 본 연구의 결과 만취경험을 한 청소년 중 여학생이 4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여학생을 위한 절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성관계 경험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음주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 음주를 한 경우는 20.0%, 만취를 경험한 경우는 40.0%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최근 30일 동안 흡연 여부도 성관계 경험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음주와 만취는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흡연과 성관계 경험 등의 다른 일탈도 상승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취를 경험한 학생의 학업 성적은 중(65.7%), 하(23.0%), 상(11.5%)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 상태는 상(43.2%), 중(39.2%), 하(1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취하지 않는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 상태는 음주 및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 선행 연구[7, 21]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ee [22]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문제 음주를 하지만,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중', '하'의 경우보다 문제 음주의 위험성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3]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은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음주의 위험요소로 나타나지 않은 연구[24]와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보다는 주류구입의 용이성, 음주 시작연령, 주변의 권유 등이 만취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25]를 볼 때 학업 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차

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어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인자가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만취한 경험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즘 청소년기 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스트레스가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가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우울, 수면 후 피로회복, 외로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9, 27]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 문제음주 발생율을 높인다는 선행연구[22, 28]와 일치한다. 외로움이 만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청소년기의 습관성 약물사용과 외로움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논문[29]에 의해 지지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하는 대상자는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1.73배(95% CI: 1.402-2.144, $p < .001$) 높고, 자살계획을 한 대상자는 자살계획을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2.18배(95% CI: 1.640-2.901, $p < .001$) 만취경험이 높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2.98배(95% CI: 2.213-4.021, $p < .001$) 만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하면서 폭음을 하는 경우 자살시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의 음주 예방과 우울감 예방 프로그램은 음주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비음주 학생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취를 경험한 청소년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정신건강의 특성인 평상시 인지된 스트레스, 수면 후 회복 만족감,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의 결과에서 보면 음주 및 만취를 이룬 나이에 경험하고, 처음 음주를 시작한 학교급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어린 시기에 술을 접하는 것을 볼 때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음주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주류 구입의 용이성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및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흡연이나 성관계 경험이 음주 및 만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로 인한 일탈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음주와 연계된 문제 행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 특성은 만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우울과 외로움은 자살, 약물 남용, 음주 등의 일탈행위와 연계되어 있어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역이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특성이 만취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로 이론이나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M. Y. Yang. (2017). *Smoking, Drinking,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rough Level-Specific Analysis of Individuals and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Sha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2] J. Y. Lee. (2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Youths' Deviation in the Poverty- Stricken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3] E. J. Bong & E. A. Kim. (2015). Effect of Drinking Problem and Internet Addiction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 youth studies*, 22(9), pp. 01-23.
- [4]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18th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22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2019. <http://www.kdca.go.kr/yhs/>
- [5] M. S. Yoon, H. J. Cho & H. H. Lee. (2009). Effects of Study Stress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Usage and Alcohol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2), 131-156.
- [6] D. Best. V. Manning, M. Gossop, M. Gross, & J. Strang. (2006). Excessive drinking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14-16 year old schoolchildren. *Addict Behaviors*, 31(8), 1424-1435.
- [7] S. K. Jung. (2011). Influence of Early Onset of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on Suicide Ideation and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Analysis of 2009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12(1), 15-27.
- [8] M. S. Yoon & H. J. Cho. (2011). A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 drinking on the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3(3), 43-66.
- [9] S. J. Yang & J. E. Lee. (2020).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life Adjustment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based o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1(1), 86-95.
DOI : 10.12799/jkachn.2020.31.1.86.
- [10] C. J. Chang & H. S. Kim. (2019).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children's suicidal ideation: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3, 169-191.
DOI : 10.17997/SWRY.63.1.6.
- [11] H. S. Jeong. (2015). Effects of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roug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8(2), 99-110.
DOI : 10.15434/kssh.2015.28.2.99.
- [12] K. K. Kim, J. J. Karl, Y. M. Kwon, & M. S. Park. (2012). Effect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Drinking Problems of Adults: A Multilev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9(5), 103-113.
- [13] K. J. Karriker Jaffe. (2011). Areas of disadvantage: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s. *Drug and Alcohol Review*. 30(1), 84-95.
- [14] A. L. Nielsen, T. D. Hill, M. T. French & M. N. Hernandez. (2010). Racial/ethnic compositi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offsite alcohol availability in san diego county, california. *Social Science Research*, 39(1), 65-175.
- [15] S. Y. Yang. (2002).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ildren of the single-parent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Policy Th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16] J.P. Hoffmann. (2003). A contextual analysi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ocial control, and strain theor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81(3), 753-785.
- [17] J. Patraitis, B. R. Faly & T. Q. Miller. (1995).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ogical Bulletin*, 117(1), 67-86.
- [18] J. A. Sh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19] Y. B. Lee & J. K. Park.(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motive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problematic drinking: dysfunctional beliefs as a mediator.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2), 359-376.
- [20] S. H. Lee & S. E. Ching.(2011). Drinking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12(1), 1-29.
- [21] Y. R. Kim & J. W. Lee. (2022).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on Adolescents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 Service Management*, 16(4), 109-122.
DOI : 0.12811/kshsm.2022.16.4.109
- [22] E. Y. Lee. (2019).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on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 Using the 13th(2017)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at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20(4), 160-168.
DOI : 10.5762/KAIS.2019.20.4.160
- [23] I. S. Kim & H. W. Baek. (2021). Demographic and Mental Health Factors of Blackouts among Teen Drinkers - A Study Based on the 16th Annual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of 2020.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12), 247-261.
DOI : 10.52902/kjsc.2021.12.247
- [24] D. G. Jang, H. S. Kim, S. H. Cha, H. J. Choi & E. W. Lee.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using the 2013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S) data.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9(2), 27-36.
DOI : 10.18014/hsmr.2015.9.2.27
- [25] J. Y. Lee. (2023). Factors of demographic, drinking, and mental health on heavy drinking experience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20), 121-138.
DOI : 10.52902/kjsc.2023.20.121
- [26] Y. J. Jee & S. K. Yang. (2019). Effects of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using the 2017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at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 9(8), 521-530.
DOI : 10.35873/ajmahs.2019.9.8.046
- [27] K. M. Park & Y. K. Yang.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30(2), 83-92.
- [28] H. S. Song. (2018).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Korean youth mental health on binge drin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421-430. DOI : 10.14400/JDC.2018.16.1.421
- [29] E. J. Nam, J. H. Lee & M. Kwon. (2021). Associations between Habitual Drug Use and Loneliness in Korean Adolescents: Secondary Data Analysis of the 2020 Youth Heal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4(3), 161-169.

임재란(Jae-Ran Lim)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 E-mail : jrlim@hit.ac.kr

이주영(Joo-Young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7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교육, 만성질환관리

• E-mail : jylee7645@jwu.ac.kr